



백색 깡이갈매기



일반 깡이갈매기

흑시 길조? ... 흰색 희귀동물 국내 첫 발견

〈수만분의 1 확률 돌연변이〉



흰색 오소리

지리산서 오소리·한려해상국립공원서 깡이갈매기 포착

멜라닌 색소 합성 안되는 돌연변이 현상... 옛부터 길조 여겨

온몸이 흰색인 오소리와 깡이갈매기가 잇따라 발견됐다. 흰색 오소리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따르면 공단은 지리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백색증(알비니즘·Albinism)을 가진 오소리와 깡이갈매기 1개체씩을 최근 발견했다.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매우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흰 오소리는 지난달 말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동작감지카메라에 찍혔다.

일반적으로 오소리는 원통 모양의 얼굴에 작은 귀와 공룡한 주둥이가 특징이다. 얼굴에 검고 흰

줄무늬가 그려져 있다. 산린 가장자리를 따라 서식하고 나무나 바위틈, 굴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흰 깡이갈매기는 깡이갈매기 천군으로 알려진 경남 통영시 흥도에서 철새 중간기착지 복원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번 달 초 관찰됐다. 지난 2007년 천수만, 2011년 인천 장봉도, 2012년 서산 간월도에서 발견된 데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깡이갈매기는 흰색 바탕·부리와 다리는 노란색, 몸 윗면은 짙은 회색, 꼬리 끝은 검은색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흰색 다람쥐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백색증 동물은 알비노 동물이라고 불리며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개체로,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어 자연 상태에서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 철회하라”

“하천관리 퇴보” 광주환경연합 성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광주시는 광주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신규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천 왼쪽 둔치에 있던 자전거 도로에 이어 오른쪽 둔치에도(무등경기장~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6km 구간) 자전거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경부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달이 살기 좋은 광주천을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기존 계획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광주천 자전거 도로건설 사업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생태국에서 건설국으로 이관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천 정책의 연속성 부재와 행정의 잇박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하천 관리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용 편의만을 생각한 신규 자전거 도로 건설은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도 벗어나 있다”면서 “자전거 도로 신규 건설과 관련,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부서 협의는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층간소음 72%는 아이들 뛰는 소리

환경부 4년간 1만1144건 조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소음민

원 1만1144건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의 71.6%(7977건)를 차지했다.

방치된 소음은 4.3%(482건)를 차지했고, 가구를 끌거나 짚는 행위로 인한 소음(3.1%, 346건), TV·정수기·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2.8%, 311건), 피아노 등 악기 소음(1.9%, 221건)이 뒤를 이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우리놈 함유량 표기 ‘먹는 물’ 수질 강화

먹는 샘물을 평가하는 수질기준에 방사성 물질인 우리놈 함유량이 추가되는 등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방사성 물질인 우리놈은 국내 지질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중금속의 하나로 장기간 마실 경우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우리놈을 먹는 물을 평가하는 수질 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2회에 걸쳐 제조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연4회에 걸쳐 유통제품 수거 검사를 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기고



박 상 은

〈핵없는세상 광주·전남공동행동 운영위원장〉

영광에는 ‘한빛원전’이 있다. 까짜위조부품, 부실설비, 방사능누출, 방사선감시기 고장, 증기발생기 내 쇳조각 등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한 가동을 하고 있는 한빛원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재가동 4월 만에 원자로정지 사고를 낸 한빛원전 3호기(한빛 3호기)가 그 한숨을 더 크게 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큰 빛이 아니라 큰 한숨을, 전기가 아니라 원전불안을 만들고 있다.

한빛 3호기는 지금 가동중단 상태다. 무려 6개월

또 멈춰선 한빛 3호기... 한수원과 원안위 행보를 주목한다

간 정비를 거쳐 재가동 4일만의 원자로 정지사고를 일으켰다. 심지어 통상적으로 2개월이면 끝나는 계획예방정비(overhaul), 18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점검)을 3배나 긴 6개월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한지 4일, 정상출력 20시간 만에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는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제어카드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고를 냈다. 정비를 마친 자동차가 정비소 마당을 벗어나기도 전에 바퀴가 빠진 것에 비유할 만하다.

주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상식적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하고 발생한 원자로정지 사고로 한수원과 원안위의 행태에 대한 한숨은 더욱 깊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에 쇳조각을 두고 재가동을 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쇳조각을 모두 제거하고 안전하게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상식적 요구는 묵살됐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가 이번과 같은 기록으로 남은 4일만의 원자로 정지사고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지난 3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악의적으로 주민들에게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증기발생기 내 15년간 쇳조각이 들어있음을 숨겼으며, 그 쇳조각을 다 제거하지 못한 채 재가동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난데없는 주민동의를 카드를 내밀었다.

정정 주민들의 동의를 원했다면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라도 갖춰야 했으나, 주민동의를 구한 다면서 한빛 3호기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진정성 없이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여주기, 명분 살리기 위해 주민동의를 운운했던 것이다. 주민동의를 아닌 주민들의 놀이를 즐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재가동 승인에 있어 아무런 권한도 구속력도 없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강요하다가 주민들이 원전안전의 상식적 원칙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주민들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멋대로 분위기만을 해석해 재가동을 강행했다. ‘셀프들의’로 주민동의를 대신한 것이다.

멈춰선 한빛 3호기는 이번 주 내로 고장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재가동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재가동을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수원은 결과발표가 있기도 전에 벌써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새로운 제어카드를 들여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알고 제어카드를 갈아 끼워 재가동을 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고 있다. ‘중고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 여부와 별개로 기간 보여줬던 부실정비, 팽팽정비에 이어 중고정비로 정비기술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한빛원전’이 ‘한방원전’이 되지 않기 기도하면서, 한수원과 원안위의 향후 행보를 주목한다.

신축 원룸 매매

관심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음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동구 충장동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완지구 로얄77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남구 백운동 대흥1차 APT, 24평 보 1천 월 60만 가격저렴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1억1천300만
③ 서구 쌍촌동 원룸 11평 온천역 3분 보 200만 월 32만 매매가 4천만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6834-4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 이면도로 코너
-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입주가능, 내부시설완비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임대가 보3,000만
월 140만**

062-527-76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6㎡) 감평가 6억5천/최저가 2억9천(유용상가)
- ② 북구 봉곡동 만성빌딩(8층중 3층) (588㎡) 2726.18㎡ 감평가 14억/최저가 9억46천(1층상가)
- ③ 북구 중흥동 써너스컨대(10층중 1층) (20032㎡, 2146.96㎡) 감평가 12억3천/최저가 9억3천(상가)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① 광신구 소촌동 (토400㎡, 건294㎡) 감평가 13억7천/최저가 9억(세차장,카벤더)
- ② 서구 양동 (180.5㎡, 건259.2㎡) 감평가 13억9천/최저가 12억3천(2층건물/1층상, 2층주택)
- ③ 목포 산정동 (토63.75㎡, 건199.2㎡) 감평가 1억3천/최저가 7천100만 (3층건물/1층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 (근린 사설, 통건물)

- ① 나주송원동(복합상가) 건물(예식장) (88474㎡, 건11735㎡) 감평가 152억/최저가 68억
- ② 전주완산구호지동 (토502,453㎡, 21689,083㎡) 감평가 125억/최저가 13억(3층상가건물)
- ③ 광양시중동 (토767㎡, 23276.78㎡) 감평가 126억/최저가 21억(6층건물)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① 광신구하남/공정 (토174.3㎡, 22635.72㎡) 감평가 4억/최저가 6955천
- ② 북구 중흥동(토300㎡, 21235.92㎡) 감평가 11억/최저가 692천 (6층모텔)
- ③ 북구 월곡동/공정 (토지매각제외, 21458.9㎡) 감평가 10억/최저가 10억
- ④ 광신구 정복동/공정 (토지매각제외, 28114.46㎡) 감평가 36억/최저가 29억
- ⑤ 광신구 월계동(무인텔) (토1522.5㎡, 21999.85㎡) 감평가 34억/최저가 34억

바닷가 편성 경매추천 물건

- ⑥ 경남 고성시회화면 (토13665㎡, 2867.16㎡) 감평가 43억/최저가 8억 (편성바다근처 건물개막 시설종류(특수물건))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226-46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① 경매 기본교육 + 실전위주 교육
② V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① 오전반 11시 ~ (기본+실전)
② 오후반 19시 ~ (기본+실전)
③ 엔피엘 교육, 특별반(상담가능)
(교육동시에 실전투자하여 수익창출 가능)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설~토목~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서구 금호동 7층상가 (유용상가) 건 296㎡ (상건물용, 시설종류) 감평가 6억6천 - 최저가 2억9천
- 2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144평, 건819평) 1층~2층상가 3층주택(건물 바로앞 도로앞 바다)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 3 광양시 중동(근린사설) 토232평, 건991평 (도로접 상가사무실임대적합) 감평가 27억 - 최저가 18억

062-527-7600
010-7384-7800